

사랑의 고통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

사랑의 조건

제임스 홀리스 지음, 김현철 옮김

“모든 삶은 관계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발전한 정도에 비례하며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보통 원초적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결과로 우리 내면에 자리잡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 해당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현재로, 그리고 지금의 관계로 전이한다. 마찬가지로 타인도 자신의 심리적 이력을 우리에게 전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일 때조차 관계의 역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의 가장 많은 관심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다. 수많은 문학과 영화, 드라마, 가요의 주제로 다뤄졌던 주제가 바로 사랑이다. 앞으로도 가장 많이 다뤄질 주제이기도 하다.

우 심리학으로 보는 친밀한 관계의 심층심리를 다룬 책 '사랑의 조건'은 사랑에 빠진 이들과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과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융학과 정신분석학이 융 심리학 대중서 15권을 집필한 제임스 홀리스가 저자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마법 같은 동반자'라는 환상이다. 그는 책에서 현대의 환상을 깨뜨리며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진정한 자기를 찾을 것을 권한다.

많은 이들의 내면에는 '마법 같은 타자', '완벽한 동반자'에 대한 환상이 있다. 저자는 이를 '에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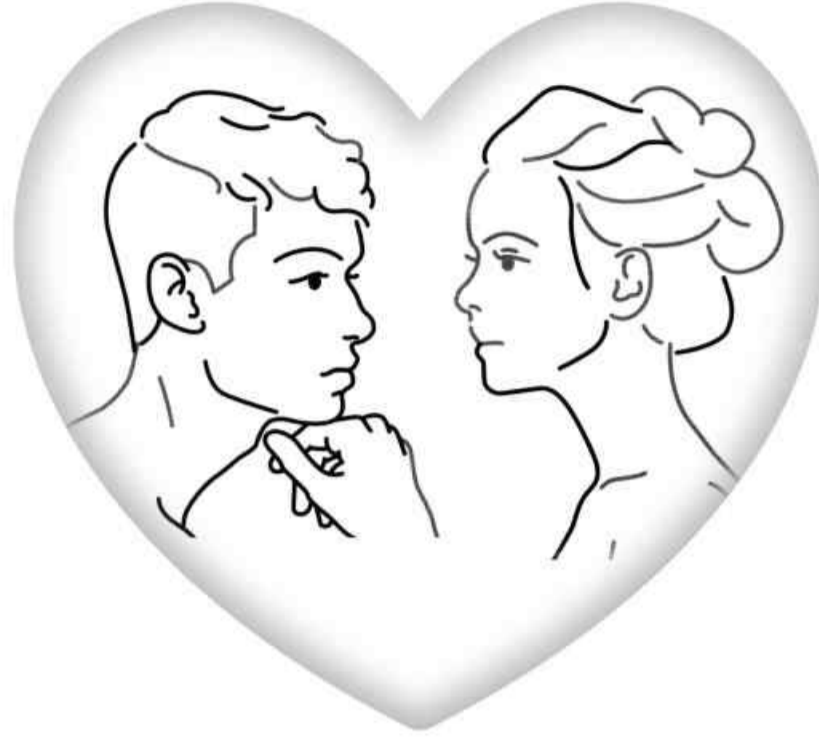
트'라 부른다. 다시 말해 반쪽을 찾아 잃어버린 낱알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려는 원초적 갈망이 낳은 프로젝트가 무의식에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뚜렷한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애정관계의 질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와 정비례한다'는 것. 저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연애의 깊이는 물론 방향과 주요 요인은 최초의 관계에서 파생된다고 본다.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을 사랑하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한다는 데 있다. 사랑의 고통에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그 기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타인을 그 자체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 입은 에로스를 만나 투사를 알아차리고 이를 거둬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확대해보면 모든 관계의 심리적 역학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표출된다. 타자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부터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고통에 지쳤다면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해 계



저자는 '애정관계의 질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와 정비례한다'고 강조한다.

속해 겸손해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타자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타자로 받아들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애정관계든 타자와 가까이 대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개인을 넓혀주는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타자와의 대화는 아무리 불쾌하고 아프더라도 개성화로 이어지는 축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퀘스트·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타인들의 나라=프랑스 군인 모로코 남성 아민과 프랑스 알자스 출신 여성 마틸드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사랑에 빠진다.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도 사랑을 키운 두 사람, 결혼 후 모로코로 이주하고 모로코에서 마틸드는 자신이 외국인이자 여성이자 아내의 신분이며 타인의 뜻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공쿠르상 수상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의 장편 소설. <문학과지식사·1만8000원>

▲우주, 상상력 공장=과학과 문학의 조화를 이룬 책 '우주를 만지다'의 시인이자 소설가, 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재술 교수가 조금 더 방대하고 심화된 내용의 우주 안내서를 들고 돌아왔다. 책은 우주의 탄생인 태초부터 종말인 태종까지 논하고 있다. 과학 이론부터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비밀까지, 과학자의 지식과 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학 에세이. <(주)특별한서재, 2만2000원>

▲자연은 협력한다='부자는 왜 더 부유해질까?' 하는 사소한 질문부터 '수천 마리의 새 떼들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날아갈까?' 자연에 대한 궁금증까지. 저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알기 위해선 모든 것을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잡계 과학은 위기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북



잡계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과 사회. <알레·2만 원>

▲달라이라마, 깨달음을 말하다=총 13장에 걸쳐 붓다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책 '달라이라마, 깨달음을 말하다'는 비교적 어려운 용어로 설명된 3대 달라이라마 소남 가초의 저서 '황금 정령의 요제'를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재구성해 발간했다. 책은 붓다의 가르침이 어떻게 티베트까지 전해졌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었는지와 수행의 방법, 버려야 할 악업 열가지 등에 대해 얘기한다. <담애틀·2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할머니의 이불장=엄마가 시장에서 간 사이 윤이와 준이는 할머니의 자개 이불장을 헤집어 이불들을 쏟아낸다. 옹과 호랑이가 수놓아진 베개부터 장미꽃이 화사하게 핀 담요, 대나무 숲이 펼쳐진 누빔이불, 물고기 그려진 모시 이불, 꽃 무더기로 가득한 차림이불, 무지개가 화사하게 피어난 색동 솜이불까지. 다채로운 그림과 아기자기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키다리·1만4000원>

▲우리는 지금도 친구일까?=주인공은 매일같이 용돈을 받지 않는 전학생에게 떡볶이를 사주지만, 전학생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너 혹시 튀김옷 없는 오징

어 먹었어?"라는 말에 둘 사이는 어긋난다. 이후 전학생의 불량한 남자친구 대신 노래방 비를 내주는 전학생을 보지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타이밍을 놓친다. 이후, 서로의 결혼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연락이 끊긴 둘 그리고 주인공에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세계잡·1만8000원>

▲잠이 술술 핫초코=잠이 오지 않는 밤, 잠에 들고 싶은 인형들은 핫초코를 만들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마음에 드는 머그잔을 고르고 초코 가루와 달콤한 꿀, 반짝이는 잠 조각까지 넣고 포근한 노래를 부르며 휘휘 젓는다. 쿨쿨 편안한 잠에 들기까지의 달콤한 여정. <소원나무·1만5000원>

명작 27편으로 만나는 낯설고 흥미로운 세계사

고양이는 왜 장화를 신었을까?

박신영 지음

사투 브론테의 '제인에어'를 읽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난한 제인에어와 귀족 로체스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로체스터의 부인 버사 메이슨에게 집중하는 이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박신영 작가의 신작 '고양이는 왜 장화를 신었을까'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로체스터가 효용 가치가 없어진 버사 부인을 '성적 방종과 광기가 유전된' 크레올(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과 혼혈인을 포함한 말)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신착란으로 몰아 다락방에 가둬두고 말한다. 백인 여성 제인이 건넌 '재산, 계급, 사회인습'이라는 바다를 크레올인 버사 부인은 건널 수 없었다는 설



명이다.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의 저자 박신영의 신작 '고양이는 왜 장화를 신었을까?'는 27편의 명작으로 만나는 낯선 세계사라는 부제가 달렸다.

책은 '유럽의 형성, 유럽인의 탄생', '중세문명과 민중의 삶', '대항해시대, 패권의 흐름', '산업혁명과 근대화, 경쟁의 뒤편',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등 5개 카테고리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그리스 신화', '변신이야기',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바보 이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많이 알려진 동화, 고전명작, 설화를 골라 역사의 뒷이야기를 펼쳐보인다.

그림형제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통해서 유럽 농촌공동체를 파괴시켰던 '인클로저' (장원 영주나 부유한 농민이 농지 등에 울타리를 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와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겨울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는 미국 독립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의 티파티와 아편전쟁으로까지 확장된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바그너의 작품 '니벨룽의 반지'의 모티브가 된 '니벨룽의 노래'를 통해서 독일 통일과 히틀러의 등장,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본다.

책은 또 1934년 출간된 애저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통해 영국에는 왜 철도미스테리 소설이 많은지 살펴본다. 그밖에 '크리스마스 선물은 왜 산타클로스가 줄까', '소설 톨아저씨의 오두막집은 왜 큰 전장을 일으킨 책이 되었을까', '조로는 왜 검은 옷을 입었을까',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왜 셋째 아들일까'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저자는 "누구도 역사의 조언 혹은 무대장치로 다루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쪽이 기록한 역사 이외에 다른 역사도 있었고, 오늘날의 세계질서가 이렇게 짜인 것은 필연적이지 않고 당연한 결과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를 알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비틀비·1만9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